TOURISM SCOPE

Volume 30 2014

The Official Magazine of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ISSN 1739-5089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최고의
관광 도시 네트워크인 TPO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도시 간 네트워크로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적 관광기구입니다.
TPO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회원 도시 간 관광산업 정보
교환을 비롯해, 관광 상품 개발, 공동 마케팅 사업, 관광 분야
교육 및 인재 육성 사업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TPO는 현재 72개 도시 정부와 37개 민간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민간 회원은 관광산업과 관련된

협회, 연구기관, 관광지 마케팅 기관(DMO) 등으로 구성되어

TPO는 아시아 · 태평양 내 도시 관광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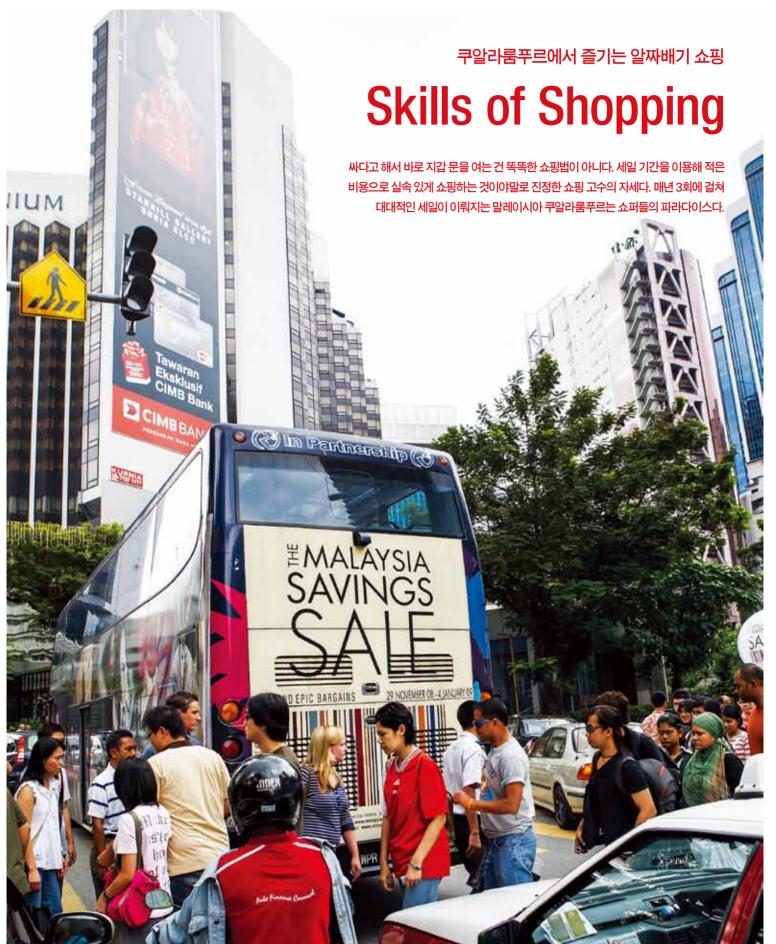
〈Tourism Scope〉 구독 신청은 TPO 공식 홈페이지(www.aptpo.org)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03CULTURE & TRAVEL쿠알라룸푸르에서 즐기는 알짜배기 쇼핑Skills of Shopping

- 07 SPECIAL
 지하철 타고 인천 하루 여행
 Full-day tour of Incheon City by Subway
- 13 CITY THEME TOUR 타이중 & 타이난 집중 탐구 Hidden Taiwan
- 17 CITY THEME TOUR 부산 달맞이고개 갤러리 투어 Dalmaji Gallery Tour Gallery Strolling
- 23 TREND & ANALYSIS 휴양하기 좋은 리조트 6 Joyful Resort in Summer!
- 27
 TPO INTERVIEW

 베트남 호찌민 시 인민위원회 부의장
- 29 TPO News
- 31 FESTIVAL CALENDAR



刘明知何的风景

Kuala Lumpur City Center

수리야 KLCC SURIA Kuala Lumpur City Center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 안에 있는 대형 복합 쇼핑몰. 6층 규모의 쇼핑몰이 아담하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좌우로 넓게 펼쳐진 쇼핑몰

에는 팍슨(Parkson), 이세탄(Isetan) 백화점, 기노쿠니야 서점이 입점해 있다.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브랜드 톱숍 (Top Shop)을 비롯해 망고, 자라, 바나나리퍼블릭 같은 친숙한 브랜드도 포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법 Putra LRT 라인 KLCC역 하차 **전화** 603~2382~2828 **운영시간** 10:00~22:00 홈 **페이지** www.suriaklcc.com.mv

MORE INFORMATION

말레이시아에서는 매년 7~8월에 진행되는 '말레이시아 메가 세일 카니발'을 시작으로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펼쳐지는 '말레이시아 이어 엔드 세일', 3월 '말레이시아 GP세일'까지, 전 세계 쇼퍼홀릭을 유혹하는 세일 행사가 연중 열린다.









平成如何的。以图

Bangsar



MORE INFORMATION

더 가든스 호텔 & 레지던스 The Gardens Hotel & Residences

오픈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신규 호텔로 448개의 객실을 보유한 호텔 과 179개의 객실을 보유한 레지던스, 그리고 최대 54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 컨벤션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넓고 쾌적한 객실과 인터내셔널 뷔페를 제공하는 레스토랑, 와인 바 등과 함께 쇼핑몰도 가까워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편안하고 기분 좋게 숙박할 수 있다.

전화 603-2268-1188 홈페이지 www.gardenshtlres.com

미드밸리 메가몰 Mid Valley Megamall

쿠알라룸푸르 외곽에 위치하지만, 지하철역에서 셔틀버스가 운행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다. 대형 할인매장인 카르푸와 메트로자야(Metrojaya)· 저스코의 백화점, 극장, 볼링장, 펫 원더랜드(Pets Wonderland), 어린이 장난감점인 메가키즈,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등 430여 개의 숍이 저마다 여행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찾아가는 법 Putra LRT 라인 Bangsar 역 하차(지하철역에서 셔틀버스 운행) **전화** 603-2938-3333 **운영시간** 10:00~22:00 홈페이지 www.midvalley.com.my

더 가든스 The Gardens

미드밸리 메가몰, 더 가든스 호텔 & 레지던스와 연결되어 있는 쇼핑몰로, 지하 1층 마켓 홀에선 오가닉 푸드와 갓 구운 베이커리, 와인과 다양한 아시아 푸드를 맛볼 수 있다. 이외에 패션 갤러리, 홈&리빙, 스포츠&레저, 웰빙&아트 등의 테마별로 숍이 정렬해 있다. 이세탄 · 로빈슨 백화점과 보더스 (Borders) 서점 등 방사르(Bangsar) 지역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쇼핑몰이다.

찾아가는 법 Putra LRT 라인 Bangsar 역 하차 **전화** 603-2297-0288 **운영시간** 10:00~22:00 **홈페이지** www. thegardens.com.my

(11 M)221 (27) 0 12 12 1

Bukit Bintang





파빌리온 Pavilion, Kuala lumpur

'별의 언덕'이라는 뜻을 지닌 부킷빈탕에서 가장 돋보이는 쇼핑몰. 450개 숍이 7층 규모의 파빌리온을 꽉 채우고 있다. 팍슨(Parkson), 탕스(TANGS) 백화점과 연결돼 있고, 영화관과 피트니스 센터, 엔터테인먼트 공간인 '레드박스 플러스'가 자리해 있다. 탕스 백화점에는 비교적 저렴한 제품이 많은 편. 타 쇼핑몰에 비해 레스토랑, 카페등이 많아 쇼핑과 식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찾아가는 법 KL 모노레일을 타고 부킷빈탕 역에서 하차 **전화** 603-2118-8835 **운영시간** 10:00~22:00 **홈페이지** www.pavilion-kl.com



스타힐 갤러리 Starhill Gallary

파빌리온 맞은편에 위치한 럭셔리 쇼핑몰인 스타힐 갤러리. 럭셔리 콘셉트에 맞게 이름만 대면 알 만한 호화로운 명품 숍이 가득하다. 쇼핑몰 내부에서는 호텔 로비처럼 정복 차림의 직원들이 손님을 맞고 있으며, 굳이 카페가 아니더라도 곳곳에 마련된 폭신한 소파에서 부담 없이 음료를 주문할 수 있다. 6층에는 갤러리와 박물관이, 5층과지하 1층에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과 바가 있다.

찾아가는 법 KL 모노레일을 타고 부킷빈탕 역에서 하차 **전화** 603-2782-3855 **운영시간** 11:00~22:00 **홈페이지** www.starhillgallery.com

버자야 타임 스퀘어 Berjaya Times Square

매달 150만 명이 찾는 쿠알라룸푸르 최대 규모의 쇼핑몰. 이곳에서 쇼핑을 하다보면 롤러코 스터 지나가는 소리와 탑승객들이 지르는 비명에 깜짝 놀라게 된다. 14개의 놀이기구를 운영

하는 코스모스 월드(Cosmo's World) 테마파크와 세계 각국의 음식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월드레스토랑, 말레이시아 최초의 아이맥스 극장 등 쇼핑 외에도 레저, 오락 등 다양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있는 복합 쇼핑 공간이다.

찾아가는 법 KL 모노레일을 타고 임비(Imbi) 역에서 하차 전화 603-2144-9821 운영시간 버자야 타임 스퀘어 11:00-22:00, 코스모스 테마파크 12:00-22:00(주말 · 공휴일에는 오전 11시부터) 홈페이지 www.timessquarekl.com





11 HAM (THO HAIT) =

China Town





센트럴 마켓 ^{Central Market}

20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전통 풍물 마켓으로, 부킷빈탕 거리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다. 1층에선 중국 거리, 말레이시아 거리, 인도 거리 등 지역별로 특색 있는 아이템을 볼 수 있고, 2층에선 말레이시아 전통 의상인 바틱과 골동품,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다. 현재 푸드코트 공사가 한창이다. 센트럴 마켓 후문 쪽의 갤러리에선 수준 높은 사진과 그림을 볼 수 있다.

찾아가는 법 Putra LRT 라인 Pasar Seni 역 하차 **전화** 603-2031-0339 **운영시간** 10:00~21:00 홈페이지 www.centralmarket.com.my

조호르 프리미엄 이웃렛 Johor Premium Outlet

MORE INFORMATION

휴앙과 쇼핑,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원한다면 말레이 반도 끝에 위치한 조호르바루(Johor Bahru)를 추천한다. 쿠알라룸 푸르에서 차로 3시간 거리인 조호르바루의 필수 쇼핑 코스는 '조호르 프리미엄 아웃렛'이다. 세나이 국제공항에서 차로 10분 거리, 싱가포르에서도 불과 40분 거리에 있는 이곳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의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록 규모와 입점 브랜드가 쿠알라룸푸르 메가 쇼핑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는 물론 아시아에서 인기 있는 로컬 브랜드까지, 웬만한 브랜드는 다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더구나 품목과 사이즈도 다양하면서 세일 폭이 보통 30~50%에 달한다. 운이 좋으면 70~90%에 이르는, 상상을 초월하는 세일 품목도 건질 수 있다.

주소 Johor Premium Outlets Jalan Premium Outlets Indahpura 81000 Kulaijaya Johor Darul Takzim 전화 607-661-8888 운영 시간 10:00~22:00 홈페이지 www.premiumoutlets.com.my







이케아

스웨덴의 인테리어 가구ㆍ소품점인 '이케이'. 감각적인 디자인과 화려한 색감, 저렴한 가격으로 사랑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정식 수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쿠알라룸푸르 시내에서 전철을 타면 30분 거리에 이케이가 있다. 쇼룸의 물건을 살 수 있는 마켓홀을 비롯해 레스토랑, 부피가 큰 물건을 집으로 부칠 수 있는 우체국 등이 함께 있다. 역에서 이케이까지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되지만, 배차 간격이 1~2시간이므로 시간대를 맞추지 못한다면 택시를 이용하는 편이 낫다. 찾아가는 법 Putra LRT 라인 Kelana Jaya 역 하차. 무료 셔틀버스가 택시 이용 전화 603~7726~7777 운영시간 월~목요일 09:30~22:00. 금~일요일 · 공휴일 09:30~23:00 홈페이지 www. kea com my

Special | 07

인천역 동인천역 도원역 제물포역 도화역 주안역



지하철 타고 인천 하루 여행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맨 끝에 있는 인천역에 내려 동인천역과 주안역을 구석구석 발로 누볐다. 1883년 개항장이었던 곳의 근대역사문화 명소는 물론 전통 시장과 동화마을, 개성 넘치는 카페에 퍼포먼스 공연장까지, 하루를 꽉 채우고도 아쉬움이 남을 만큼 볼거리가 넘쳐난다.



Special | 08



차이나타운의 별미



월병

중국에선 추석 때 송편 대신 달 모양의 월병을 만든다. 지역에 따라 다양한 소를 넣는 것이 특징. 중국의 대표 명과로 여행자들이 즐겨 찾는 선물 품목 중 하나다. 가격 2500~3000원



옥기병

고구마와 단호박, 고기, 팥 등을 넣고 중국 전통 방식으로 화덕에 구운 항이리 만두. 노릇노릇하게 구운 만두를 한 입 베어 물면 육즙이 흘러나와 촉촉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이다. 가격 1500~2000원



공갈빵

속이 텅 비어 있어 '공갈빵'이라고 불리는 중국식 호떡. 빵빵하게 부 풀어 오른 피는 과자같이 바삭하고, 계핏가루나 코코넛가루로 맛을 낸 소는 달콤 짭짤하다. 가격 1000~2000원



짜장면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 2012년, 옛 공화춘(共和春) 건물을 개보수해 2층 규모의 전시 공간 으로 꾸몄다. 1930년대 공화춘의 접객실과 1960년대 주 방을 재현해놓았고, 짜장면과 관련된 영상, 유물 등의 자료도 볼 수 있다.

주소 인천시 중구 차이나타운로 56-14(북성동1가 38-1번지) 전화 032-773-9812 운영시간 09:00~18:00, 연중무휴 입장료 성인 1000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 홈페이지 www.icigss. or.kr/iaianamyeon





AM 09:00 인천 속의 중국 차이나타운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종착역인 인천역이 이번 여행의 시작 지점. 역사를 빠져나오면 길 건너편에 차이나타운의 대문이라 할 수 있는 패루가 보인다. 영산홍처럼 붉은빛의 중국풍 거리는 이곳의 상징. 경사진 길을 따라 건물마다 중국어 간판을 내걸고, 홍등을 늘어뜨린 상점들이 이른 아침부터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하다. 차이나타운은 1883년 인천항 개항 이후 중국인이 몰려와 형성된 곳으로, 지금까지 중국 고유의 독특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주변에는 1888년 국내 최초로 조성된 서양식 공원인 자유공원, 청국과 일본인들의 주거지역을 나누던 청・일 조계지 경계 계단, 중국식 정원인 한중원(韓中園) 등 둘러볼 곳이 많다.

주소 인천시 중구 차이나타운로59번길 12(선린동) 전화 032-810-2851 홈페이지 www.ichinatown.or.kr



AM 10:00

차이나타운에 왔다면 도보로 10여 분 거리에 위치한 송월동을 빼놓을 수 없다. 올해 초 세계 명작 동화를 주제로 한 테마형 마을이 조성되었기 때문. 이곳은 개항기에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부촌이었는데, 차츰 개발의 물결에서 밀려나 외면받다가 동화마을로 거듭난 뒤 다시 주목받고 있다. 도로시 길,성의 나라길,신비의길등 10가지 테마로 조성,집집마다 알록달록한 벽화로 꾸며 지나는 이들의 발

길을 붙잡는다. 사슴 밤비와 시들지 않는 나무, 벤치 등이 있는 포토존과 쉼터도 거리 곳 곳에 숨어 있다. 화려한 꽃들이 눈부시게 피어나 한바탕 축제를 벌이는 지금이 바로 송월동 여행의 적기. 마을 입구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팬시우드아트와 클레이아트를 가르치는 일일체험교실도 운영한다.





주소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서로45번길 52(송월동3가) **어린이 체험교실 토리스토리 전화** 032-762-7007

Special - 09



AM 11:00 개항장 근대역사문화타운 속 테마박물관 둘러보기

1883년 개항 후 무려 130년의 역사를 간직한 '개항장' 일대 탐방은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 이곳은 일본과 중국이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공간이자, 외국무역의 중심지로 서구 문물이 도입되었던 창구이기도 했다. 서양식 근대건축물과 중국 · 일본식 건축물은 물론 개항기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테마박물관도 들어서 있다.

통합 관람권

짜장면박물관,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인천개항박물관의 입장료를 통합 발권하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구입처 해당 박물관 가격성인 1700원, 청소년 1100원, 어린이 800원



개항장에 핀 예술혼 인천아트플랫폼

낡은 공장과 창고가 예술가들의 작업실로 탈바 꿈한 뉴욕의 브루클린을 쏙 빼닮은 공간. 1886 년에 세운 일본 우선주식회사 사옥을 비롯해 19세기 개항장에 들어선 해운업체의 창고와 인 쇄소 등 근대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만든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다. 연면적 5593.43m²(약 1692평) 부지에 창작스튜디오, 공방, 자료관, 교육관, 전시장, 공연장 등 총 13동이 들어서 있다. 각 건물 사이를 거닐며 개항기 인천항의 위용을 떠올려보거나, 1년 내내 다채롭게 펼쳐지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감상하는 것을 추천. H동 1층에는 지난 전시 자료나 책을 보며 쉬었다 갈 수 있는 카페가 자리한다.

주소 인천시 중구 제물량로218번길 3(해안동 17) 전화 032-760-1000 운영시간 3~11월 일~목요일 10:00~18:00, 금 · 토요일 10:00~20:00, 12~2월 10:00~17:00, 월요일 휴관 홈페이지 www.inartplatform.kr



근대가 시작되던 그때를 엿보다 인천개항박물관

시 유형문화재 제7호, 일본제1은행

르네상스 양식의 석조물이 인상 적인 이곳은 옛 일본제1은행 인 천지점이 있던 건물로, 한국은 행(1909)과 조선은행(1911)의 인천지점으로도 사용되었다.

현재 이곳에선 1883년 개항 직후부터 일제 강점이 시작되는 1910년 이전까지의 유물 321종, 669점을 전시하고 있다. 갑신정변(1884)이 일어나 단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하고 유럽의 수집가들에게 팔려나간 우리나라 최초의 우표를 볼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옆 건물의 기획전시실에서는 〈렌즈 속에 담긴 제물포의 어제와 오늘〉 전이 7월 1일까지 열린다.

주소 인천시 중구 신포로23번길 89(중앙동 1가 9-2) 전화 032-760-7508 운영시간 09:00~18:00, 연중무휴 입장료 성 인 500원, 청소년 300원, 어린이 200원 홈페이지 www.icjgss.or.kr/open_port



근대문학 별들의 축제 한국근대문학관

지난해 9월 오픈, 한국의 근대문학을 총망라한 문학관. 옛 창고건물 4동을 리모델링하기 위해건축가이자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황순우 작가가 설계를 도왔다. 벽과 천장에 묻혀 있던 벽돌

과 서까래 등의 목재를 남겨두어 세월의 결이 그대로 느껴진다. 최남선, 한용운, 김소월, 나도향, 현진건, 백석 등 문인들의 작품과 자료 3만여 점을 갖추고 있다. 1층 전시실에서는 19세기 말부터 1948년까지의 시와 소설을 만날 수 있고, 2층 전시실에서는 인천 출신 문인들의 근대문학 작품과 한국 근대 대중문화 전시를 볼 수 있다. 2층 테라스 공간은 채광이 좋은 독서 공간으로 꾸몄다. 기획전시실에서는 후대 작가들의 특별전이 열리는데, 6월에는 현덕 작가의 소설 〈남생이〉를 주제로 한 기획전이 마련된다.

주소 인천시 중구 신포로15번길 76 전화 032~455~7165 운영시간 10:00~18:00, 월요일 · 법정 공휴일 다음 날 · 1월! 일 · 명절 휴관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http://lit.ifac.or.kr/



모형으로 만나는 근대 건축물

인천개항장 근대건축

전시관 시유형문화재제50호, 일본제18은행

2006년, 이 일대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박물관. 개항기 인천의 모 습과 일본제1은행, 일본제18은행, 프랑스풍 양식의 일본제58은행.

제물포 구락부 등 현존하는 근대 건축물뿐 아니라, 존스톤 별장과 영국영사관 등 소실된 건축물들도 모형으로 전시하고 있다. 현재의 전시관이 자리한 터는 일본 나가 시키에 본점을 둔 18은행이 1890년 당시 한국의 금융을 지배하기 위해 개설한 은행이 있던 곳이다. 이후 조선식산은행(1936), 한국흥업은행(1954) 인천지점을 거쳐 1992년까지 카페로 사용되다 인천시에서 매입해 새롭게 단장했다.

주소 인천시 중구 신포로23번길 77(중앙동 2가 24-1) **전화** 032-760-7549 **운영시간** 09:00~18:00, 연중무휴 **입장료** 성인 500원, 청소년 300원, 어린이 200원,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무료 **홈페이지** www.icigss.or.kr/architecture

Special + 10



1 동인천역



신포시장의 별미

닭강정

큼지막한 닭고기 튀김을 물엿과 청양고추를 섞어 만든 소스에 버무린 강정. 중독성 강한 매운맛과 시간이 지나도 바삭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격 1만 1000원~1만 6000원

오색 찐빵 · 만두

체리, 치자, 쑥가루를 넣어 알록달록한 색 감이 식욕을 자극한다. 노랑, 초록, 분홍 빵 속에 고기와 팥소를 듬뿍 채워 식사 대용으 로 그만이다. **가격** 1000원







^{↑M 01:00} 인천 최초 상설시장 신포국제시장

개항장 탐방으로 배가 출출해졌다면 신포국제시장으로 향하 자. 인천아트플랫폼부터 걸어서 10분도 채 안 되어 시장 입구 에 도착. 신포 닭강정으로 명성이 자자한 시장이 바로 이곳이 다. 신포국제시장은 19세기 말에 형성되어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유서 깊은 시장이다. 처음에는 중국 농민들이 채소 농 사를 지어 내다 팔던 '푸성귀전'이 주를 이뤘는데, 개항과 광 복을 거치면서 현재의 상설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시장 한쪽 에 있는 푸성귀전 조형물과 반대편 시장 끝자락에 있는 등대 공원, 공연 · 문화 공간 등 볼거리도 풍성하다.

신포국제시장상인회 주소 인천시 중구 우현로49번길 11-5 전화 032-772-5812 홈페이지 www.sinpomarket.com



달동네의 정겨운 풍경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달동네의 추억이 서린 수도국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던 집들은 사라지고 없지만 달동네 터에 들어선 박물관에 가면 그때 그 시절 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구멍가게, 연탄가게가 들어선 달동네 골목을 그대로 재현했고, 곳곳에 반공 포스터도 붙어 있어 호기 심을 불러일으킨다. 사람 한 명이 눕기에도 비좁은 단칸방과 공동 수도, 화장실 등도 실물 크기로 생생하게 재현해놓았다.

주소 인천시 동구 솔빛로51번길 전화 032-770-6130 입장료 성인 500원 청소년 300원, 어린이 200원 **운영시간** 09:00~18:00, 월요일 · 1월 1일 · 명절 당일 휴관 홈페이지 www.icdonggu.go.kr/museum









PM 02:00 거꾸로 걷는 시간 여행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동네. 개항 이후 일본인들에게 개항장 일대 삶의 터전을 넘겨줘야 했던 조선인들이 모여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과거 이곳엔 성냥·간 장 · 고무신 공장 등 조선인들의 일터가 있었고, 마을 주변에 헌책방이 들어서면서 지성인들의 사 랑방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그런 이곳에 2007년 마을을 관통하는 산업도로 공사가 진행될 뻔했 다가 마을 주민과 문화예술인이 이를 저지하면서 역사문화마을로 이름을 바꿔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다. 배다리 헌책방 거리부터 시작해 창영동 벽화골목을 지나 우각로 문화마을까지 걷는 코스를 추천, 지난 3월, 마을 입구에 주민들이 운영하는 '배다리 안내소'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배다리 안내소 주소 인천시 동구 금곡동 11-9 홈페이지 cafe.naver.com/fullmoonh

Special | 11



● 주안역



신기시장의 별미

즉석 튀김 빵

모자가 함께 운영하는 즉석 튀김 빵집. 쫄깃한 꽈배기와 적당히 달고 맛있는 단팥빵이 가장 인 기 있다. **가격** 2개 1000원

손칼국수



주인장이 반죽을 손으로 치대고 있다가 주 문이 들어오는 즉시 썰어 칼국수를 끓여내 는 집. 쫀득한 면발은 기본, 멸치를 우려낸 감칠맛 나는 육수와 그날 담근 겉절이 김치 까지 착한 가격에 맛볼 수 있다. 가격 3000원











PM 03:00 체험형 전통 시장 신기시장

신포국제시장과 함께 인천을 대표하는 시장.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수상쩍은 이곳은 외국인 여행자들도 찾아오는 문화관광형 시장이 다. 이곳에선 조선 시대 화폐인 '상평통보'를 본떠 만든 '신기통보'를 화폐로 사 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 전통문화체험관에선 한지공예, 자개공예, 민화 채색 등을 신기통보 4개와 약간의 재료비만 내고 체험할 수 있다. 기발한 아이디어와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통 시장이 활력 넘치는 관광 명소로 탈바꿈했다.

주소 인천시 남구 주안동 1366-29 전화 032-865-5424 전통체험관 운영시간 10:00~18:00 신기통보 가격 1개당 500 원 홈페이지 www.shingimarket.com



() PM 04:00 인천 유일의 예술영화관 영화공간 주안

2007년 문을 연 독립예술영화 전문 상영관 '영화공간 주안'은 영화를 사랑하는 인천인들의 아지 트다.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저예산 독립영화와 수준 높은 예술영화를 동시에 선보이는 것. 100~140석 규모의 상영 전용관 3개와 다목적관인 '컬쳐팩토리' 1개를 갖추고 있다. 목요일마다 새로운 작품을 업데이트해 최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특징. 작품 선정은 김정욱 관장의 몫 이다. 그는 만신 김금화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비단꽃길)을 만든 감독이자 최근 예술



교육 다큐멘터리 영화 (카토 프로젝트)를 만 든 당사자이기도 하다. 한 달에 한 작품을 선 정, 김 관장과 정신과 전문의가 함께 정신분 석과 영화미학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사 이코시네마인천', 단편영화 · 예술영화 · 실 험영화 등을 주제로 3~4개 작품을 엮어 한 자리에서 상영하는 '인천시네마테크' 프로그 램 등이 인기다.

주소 인천시 남구 미추홀대로 716(주안동) 메인프라자 7층 전화 032-427-6777 **운영시간** 13:00~22:00. 월요일 휴관 관람료 성인 6000 원 **홈페이지** www.cinespacejuan.com

Special + 12



(†) PM %:00 차 한잔의 여유 주안역 이색 카페 3선

주안역 근처에는 홍대 뒷골목에서 마주할 법한 아기자기한 로컬 카페가 여럿 있다. 주인장이 건강한 재료로 손수 만든 디저트는 물론 유명 숍에 직접 주문해 온 명품 디저트, 매 장에서 직접 로스팅한 품질 좋은 원두 등 저마다 특징을 지녔다. 친한 친구와 함 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담소를 나누고픈 분위기 좋고 편안한 카페를 골랐다.





홈메이드 한식 디저트 시루 SIRU

떡을 찔 때 사용하는 한국 고유의 찜기 '시루'. 이름 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곳은 한식 디저트 카페다. 전 통 차와 떡, 계절 과일을 접목한 이색 메뉴를 선보인 다. 주안역 광장 한쪽에 아담하게 자리한 카페에선 매일같이 떡 찌는 구수한 냄새가 솔솔 풍긴다. 딸기 를 넣어 만든 아이스 모찌, 빵과 빵 사이에 인절미를 넣고 계핏가루와 콩고물, 견과류를 듬뿍 뿌린 인절 미토스트, 그날그날 신선한 재료로 만드는 생과일 셔벗이 인기다.

주소 인천시 남구 주안1동 130-10 1층 전화 010-5597-1920 운영시간 11:00~23:00, 둘째 · 넷째 일요일 휴무 **가격** 석류펀치 6500원, 인절미토스트 7000원 홈페이지 blog.naver.com/cafesiru





유럽식 디저트 카페 카이

10종의 컵케이크와 12종의 마카롱을 맛볼 수 있는 디저트 카페. 대구의 유명 컵케이크 전문점 CSK컵 케익스토리에서 매일 신선한 컵케이크를 전달받고 있다. CSK컵케익스토리는 호주 시드니의 유명 케 이크숍 '컵케이크 온 피트(Cupcakes on Pitt)'를 우리 입맛에 맞게 재탄생시켰다. 유럽식 케이크 반 죽을 베이스로 하는 것이 맛의 비결. 무염 버터를 사용한 반죽과 천연 농축액으로 만든 크림을 사용 해 칼로리 부담도 적다.

주소 인천시 남구 주안동 133-3 대동빌딩 1층 전화 032-422-9262 운영시간 11:00~24:00 **가격** 아메리카노 2500원, 미카롱 2000원, 컵케이크 3500원





로스터리 숍 카페 언더스탠드

CAFFE UNDERSTAND

일주일에 4번이나(!) 커피를 볶는 집. 커피 위 풍성 한 크레마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카페 언더스탠드 의 주인장은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고객을 이해하 겠다는 다짐으로 카페 이름을 'Under+Stand'라고

> 지었다. 보통 10가지 원두를 갖추고 있고, 커 피를 테이크아웃 하면 1000원을 할인해준

> > 다. 스무디와 에이드 종류는 유리병 에 담겨 나오는데 풍부한 맛은 물론 넉넉한 양도 칭찬할 만하다. 특히 수제 치즈케이크 명가인 '가토미 작'에서 직접 가져오는 조각 케이 크 맛이 일품이다.

주소 인천시 남구 주안로 89 오피스텔 디에이 리 베로 111호 전화 032-872-8679 **운영시간** 10:00~23:00 가격 아메리카노 3500원, 블루베 리스무디 5000원 홈페이지 blog.naver.com/ cfunderst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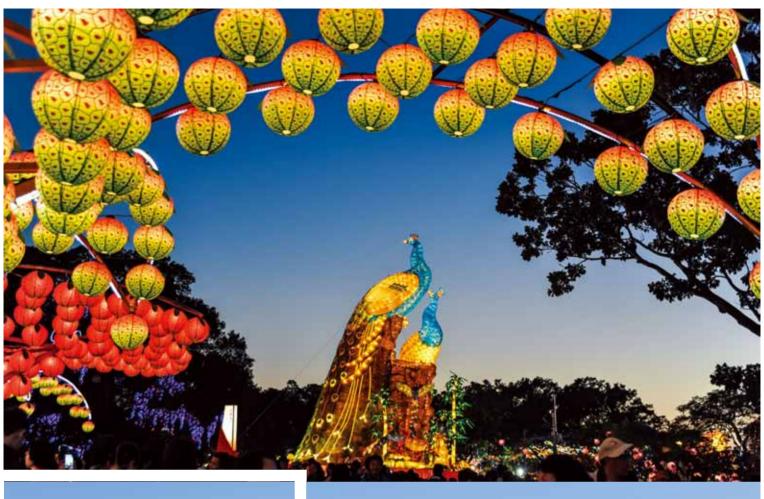


PM 08:00 맛있는 공연 비밥^{BIBAB}

인천 여행의 마침표는 한류 문화 콘텐츠로 떠오른 넌버벌 퍼포먼스 (비밥) 공연 관람. '난타'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비빔밥의 특징인 '믹스 앤드 하모니'를 콘셉트로 중국의 치킨누들과 일본 의 스시, 이탈리아 피자를 만드는 과정을 몸짓으로 재치 있게 표현한다. 대사가 없는 대신 비트 박스, 비보잉, 아카펠라 등 비언어적인 요소를 위트 있게 활용해 외국인 관객들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이 특징. 독특한 콘셉트와 흥겨운 구성이 돋보이는 (비밥)은 2010년,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티켓 매진 사례를 기록하기도 했다.

기간 2014년 12월 31일까지 장소 인천 중구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ibap.co.kr

City Theme Tour | 13



타이중 & 타이난 집중 탐구

HIDDEN TAIWAN

타이완을 간다고 하니 주위에선 타이베이만 콕 집어 추천한다. 그러나 청개구리 심정으로 선택한 곳은 타이베이의 그늘에 가려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타이중과 타이난. 인적 드문 골목 끝에 진짜 맛집이 숨어 있듯이, 타이와 여행의 묘미는 이곳에 잔뜩 모여 있었다



City Theme Tour | 14







소원을 말해봐!

따지아전란궁 大甲鎮瀾宮

바다의 여신, 마조(媽祖)를 모시는 사당. 타이완에는 3000개의 마조 사원이 있는데 그중 으뜸으로 꼽히는 곳이다. 마조는 중국연안 지대의 뱃사람들이 숭배하던 여신으로, 항해의 안전을 위해세운 것이 그 시초였다. 지금도



매년 음력 3월 23일, 마조 탄신일이면 마조신 신도들이 마조 여신상을 따라 9일간 타이중, 장화, 윈린, 자이까지 이어지는 330km의 긴 여정을 순례한다. 28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사당은 정교하고 화려한 장식이 눈에 띈다. 불공을 마친 이들은 마음속으로 자신의 소원을 말한 뒤 빨간색 나무패 두 개를 던진다. 두 개의 패가 다르게나오면 '긍정'을 뜻하고, 일치하면 '부정'을 의미한다. 두 패가 다르게나온 사람은 대나무 스틱을 뽑고, 그 번호에 따라 보관함 속에 담긴 쪽지를 열어본다. 타이완 사람들은 사업이나 학업, 결혼 등 큰일을 앞두고 마조 여신에게 자신의 운세를 묻곤 한다.

전화 04-2676-3522 운영시간 03:30~23:00 홈페이지 www.dajiamazu.org.tw



세계 3대 종교 건축물 중 하나로, 중국과 서양의 건축양식을 융합한 대규모 사찰. 37층짜

리 현대식 건물로, 높이만 해도 108m에 이른다. 1, 2층을 둘러보는 것이 보통이지만, 모든 층을 둘러보려면 사전 예약은 필수. 2층, 5층, 9층에는 석가모니 불상이 놓여 있는데, 층마다 제각기 다른모습이다. 2층에는 달마대사와 관우가, 5층에는 아미타불과 약사여래가 석가모니와 함께 모셔져 있다. 하늘과 통한다는 31층은 꼭들러볼 것. 두 손을 합장하고 '나무아비타불'을 염불하며 부처님께기도를 올리다보면 어느새 몸과 마음이 평온해진다.

전화 04-9293-0215 운영시간 08:00~17:30(겨울에는 17:00까지) 홈페이지 www.ctworld.org



단수이 석양에 버금가는 까오메이습지 ^{高美濕地}

타이중 까오메이 지역에 위치한 습지. 바닷가를 따라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설치돼있어 이국적인 정취를 풍긴다. 습지 위에 나무 데크가

놓여 있어 가볍게 산책하기도 좋다. 특히 해 질 녘 풍광이 압권. 땅거미가 질 무렵이면 카메라를 둘러멘 출사객들로 번잡해진다. 바람에 빙글빙글 도는 바람개비, 물이 빠져나간 갯벌, 그리고 붉은 노을이 삼박자를 이뤄 그림 같은 풍광을 만들어낸다.

찾아가는 법 타이중 공항에서 칭수이(淸水)행 버스를 탄다. 칭수이에서 178번, 179번 버스나 택시를 타면 된다. 버스 요금은 770원 정도, 택시는 8000원 정도.

맛있고 저렴한 간식거리 천국 평지아 야시장 逢甲夜市

대만에서 가장 큰 야시장으로, 평지아대학 맞은편에 자리해 대학가 문화와 묘하게 어우러졌다. 그 덕에 저렴한 먹을거리는 물론 쇼핑도 함께 즐길 수 있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오후 5시가 되면 야시장은 빛을 발한다. 대만 각지에

서 몰려든 사람들과 외국인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것. 한 평도 안 되는 자그마한 포장마차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직화로 구워주는 스테이크를 비롯해 각종 꼬치, 문어튀김, 딤섬, 어묵, 치킨, 새우구이 등입을 즐겁게 할 간식거리로 가득하다. 야시장에서 가장 많이 찾는 메뉴는 딤섬. 5개에 60타이완달러로, 2100원 정도다. 거리에서 파는 간식은 대개 3000원을 넘지 않을 정도로 저렴하다.

주소 Xitun District, Taichung City 전화 04-2220-3585 운영시간 17:00~24:00

City Theme Tour



도심의 바쁜 일상에서 차 한 모금의 여유와 푸른 자연을 만나고 싶다면, 미술원길이 정답이다. 국립대만미술관 맞은편에 좁다랗게 펼쳐진 미술원길, 메이수위안다오(美術圓道). 길 한가운데 정원이 있고, 양옆으로 의류와 액세서리, 공방, 레스토랑, 카페 등의 가게들이 마주 보고 있다.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한 후 버블 밀크티를 손에 들곤 운치 있는 미술원길 곳곳을 거닐다보면 어느새 하루해가 저문다.



대중에게 활짝 열린 미술관

국립대만미술관 The National Taiwan Museum of Fine Arts

1988년 설립, 1999년 대지진으로 일시 폐쇄됐다가 2004년 8월 재오픈했다. 명·청 시대의 고미술부터 팝아트 작품까지 근·현대 미술을 아우르고 있다. 10만 2000㎡ 넓이의 드넓은 야외 조각공원이 눈길을 끄는데, 산책을 나온 가족과 연인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조각공원에는 류바이춘(劉柏村), 왕칭타이(王慶臺) 등 대만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을 전시, 그중양 갈래 머리를 한 소녀가 몸을 웅크린채 하늘에 떠 있는 왕칭타이 작가의 작품〈운옹(雲擁)〉이 미술관 입구에서 시선을 사로잡는다.

전화 04-2372-3552 **운영시간** 09:00~17:00, 휴일에는 18:00까지 연장, 매주 월요일 휴무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www.ntmofa.gov.tw



국립대만미술관 지하 1층에 자리한 춘수이탕은 31년 된 원조 버블 밀크티 전문점. '전주나이차(珍珠奶茶)'라 불

리는 버블 밀크티는 밀크티 안에 쫀득쫀득한 타피오카(Tapioca)를 가득넣은 것. 타피오카 알갱이가 진주를 닮아서 'Peal Milk Tea'라고 부르기도한다. 인도산 홍차에 타피오카와 사탕수수를 섞어 만든 춘수이탕의 버블 밀크티는 말캉말캉한 식감과 진한 홍차 맛이 어우러져 예부터 타이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660cc 한 잔이면 한 끼 식사로도 든든하다.

전화 04-2376-3342 운영시간 11:00~22:00 홈페이지 chunshuitang.com.tw



파인애들도 민준 대한 게이크, 정리구(屬梁和) 진군점. 이곳 대지(大地)점은 가정집을 개조한 고즈넉한 외관이 눈길을 끈다. 향기로운 꽃 냄새가 발길을 이끄는데 마당에 활짝 핀 들꽃이 마치 플라워 숍을 연상케 한다. 일출의 펑리수는 동과(冬瓜)로 과하게 단맛을 내거나 과일 시럽으로 대충 맛을 낸, 시중에서 파는 펑리수와 차원이 다르 다. 파인애플 알갱이가 통째로 들어 있어 쫄깃한 식감은 물론 과일의 깊은 풍미까지 느낄 수 있다. 패키지가 고급스러워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다.

전화 04-2376-1135 운영시간 10:00~21:00 홈페이지 www.dawncake.com.tw

City Theme Tour







공자의 가르침은 타이난에 흐른다 콩쯔먀오(공묘) 위廟

공자의 사원인 공묘는 중국 취푸(曲阜)에 있는 공묘에 비하면 규모가 무척 작지만, 계층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배움의 기회를 주고자 했던 공자의 가르침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뾰족하게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지붕의 독특한 건축양식은 중국 푸젠성의 건축양식을 따른 것으로 '등용문'의 상징인 물고기에서 용으로 변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장식이 흥미롭다. 공자에게 인사를 드리는 대성전과 청조 석비 24개가 놓여 있다.

주소 No2. Nanmen Rd. Midwest District Tainan City 운영시간 08:30~17:30



위풍당당 일본군에 대항하다 이차이진청 ^{億載金城}

'1억 년이 지나도 견딜 수 있는 철 벽의 성'이라는 뜻을 지닌 요새로, 청나라 말기에 안평 항에 상륙하려 는 일본군에 대항하기 위해 1876 년 완공됐다. 당시엔 13문(門)의 대포와 1500명의 병사가 위풍당 당하게 타이난을 지키던 자리였지 만, 현재 해자 자리에는 귀여운 오



리배가 떠다니고 훈련 장소였던 광장은 꽃밭으로 꾸며진 보기 좋은 정원으로 탈바꿈했으며 탄약고가 있던 자리만 일부분 남아 있다.

주소 No.3, Guangjhou Rd., Anping District, Tainan City 전화 06-295-1504 운영시간 08:30~17:30



네덜란드 통치의 흔적 츠칸러우 赤嵌樓

잘 정돈된 정원을 떠올리게 하는 이곳은 네덜란드 통치 시절 행정부 사무실로 쓰던 건축물이었다. 원래는 네덜란드 건축양식의 건물이었으나, 1653년 명나라 시절 타이완의 국민적 영웅인 정성공(Koxinga)에 의해 명나라 건축양식으로 새롭게 다시 지어졌다. 나뭇가지로 뒤덮인 건축의일부분만이 과거의 흔적을 보여줄 뿐이다. 2층에 올라가면 시험 합격의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공부의 신'이 있으니, 시험을 앞둔 사람이라면 향이라도 피워 올려보자.

주소 No. 212, Sec2, Minzu Rd. Midwest District Tainan City 운영시간 08:30~17:30



타이완 최고의 단자이면을 찾아서 두샤오위에 度小月 Tu Hsiao Yueh

타이완을 대표하는 음식인 단자이몐의 고향은 타이난이다. 단자이몐은 일종의 타이완 스타일 잔치국수로 조리 시간도 짧고 가격도 저렴해 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쌀국수에 오랫동안 조린 다진 돼지고기를 풀고 새우하나와 달걀조림을 올려 먹는 요리로 달콤

하면서 살짝 시큼하고 전체적으로는 매콤하다. 과거 어부였던 주인이 우기에 고기를 잡기 어려워지자 거리에서 단자이면을 팔기 시작 하면서 문을 연 레스토랑은 이제 타이난의 명소가 됐다.

전화 06-2200-858 운영시간 11:05~23:00 홈페이지 www.iddi.com.tw



City Theme Tour |

부산 달맞이고개 갤러리 투어

Gallery Strolling

Exhibition by Moon Hyeong 8 19 = 4.13 Gallery Mac

A Door



녹음이 점점 짙어지니 마음이 싱숭생숭하다. 어디든 훌쩍 떠나고 싶은 이 계절, 부산 달맞이고개를 찾았다. 햇살 쏟아지는 해운대를 지나자 무성한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는 언덕에 개성 넘치는 갤러리들이 줄지어 있다. 초여름 몽마르트르에서 느꼈던 감성이 싱그러운 바람을 타고 생생히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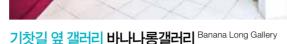




달맞이고개 부근



'동양의 몽마르트르'라 불릴 만하다. 가파른 언덕을 따라 카페와 갤러리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달맞이고개를 오르다보면 바다와 내가 하나 되는 듯한 숨 막히는 순간과 마주하게 된다. 기적 소리 끊긴 지 오래지만 기찻길은 여전히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물.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깜찍한 비주얼, 바나나를 떠 올리게 하는 상큼한 외관은 이미 여행 블로거들 사이에서 입

소문이 자자하다. 5년 전 강문주 관장이 낡은 집을 개조



해 14평의 아늑한 갤러리로 꾸몄다. 서너 명만 들어와도 꽉 차는 작은 전시장에는 강아지 '콜라'가 관람객을 맞고 있다. 하이퍼 콜라주를 선보이는 이홍석 작가의 사진 작품을 비롯해 책을 통해 인류 문명을 이야기하는 여원 작가의 오브제, 기계 부품으로 완성된 성낙희 교수의 조각품, 이진철 작가의 빗살무늬 토기 그림 등 관장의 취향이 녹아든 작품들이 전시장 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림을 좋아하 는 이라면 누구나 바나나롱갤러리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한 점이 지친 삶에 위로 를 거네는 이곳은 마치 간이역 같은 곳이다.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42 **전화** 051-741-5106 **운영시간** 12:00~19:00, 월요일 휴관 **입장료** 5000원 **홈페이지** www.bananalonggallery.com



바나나롱갤러리



살롱 드 바나니



객러리 몽마르트리





갤러리로 변신한 아파트 살롱 드 바나나 Salon de Banana

<mark>아파트가 갤러리로</mark> 거듭났다. 실제 바나나롱갤러리의 강문주 관장이 사는 <mark>곳이기도 하다. 방과</mark> 거실, 주방에 작품을 전시, 신발을 벗고 내 집처럼 편하 <mark>게 앉아 작품을 볼 수</mark> 있다. 28층 높이의 이곳은 바나나롱갤러리의 두 번째 <u>갤러리로, '살롱'이라</u>는 이름답게 차별화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mark>심리상담사인 강</mark>문주 관장이 이끄는 상담 프로그램 '자조집단'을 비롯해 한 국화가 이진철의 드로잉 및 민화 수업, 독서 치료사 강수현의 책읽기 및 책 만들기, 패션 디자이너 심수진의 패션 일러스트 드로잉 및 패션 가이드, 패 션 디자이너 송윤정의 펜화 · 소묘 및 가방 디자인 수업, 바리스타 스미스 리 의 커피 수업 등 요일별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35 현대아쿠아팰리스 2802호 전화 051-741-5106 운영시간 11:00~20:00, 월요일 휴관 **입장료** 1만 5000원(다과 포함



전시와 함께 누리는 향긋한 다도 시간

갤러리 몽마르트르 Gallery Montmartre

동백섬과 백사장이 내려다보이는 해운대 언덕 초입에 있다. 모네처럼 재능은 있지만 전시할 공간이 없었던 파리의 가난한 예술가와 같은, 부산 작가들에게 작품 전시 기회를 주기 위해 2002년 7월 문을 열었다. 한국 화를 전공한 신태은 관장이 올해부터 운영을 맡아. 제2 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곳을 찾는 관람객에게 관장

이 직접 전통 차와 핸드드립 커피를 대접하는데, 차 맛이 일품이다.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93 전화 051-746-4202 운영시간 11:00~19:00, 월요일 휴관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montmartre.alltheway.kr



작가를 인큐베이팅하는 착한 갤러리 맥화랑

2007년 3월 개관한 현대미술 전문 갤러리. 규모는 작지만, 내실 있는 전시와 기획으로 젊은 작가들을 지원하는 갤러리로 유명하다. 신진 작가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맥화랑 미술상'을 개최, 매년 작가를 선정하고 이들의 전시를 열어준다. 그뿐 아니다. '10만 원대 행복한 그림 전'을 7년째 이어오고 있다. 그림을 좋아하지만 만만치 않은 작품 가격 때문에 구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맥화랑에서는 '미술품 소장의 대중화'를 위해 10만 원에서 99만 원대의 비교적 저렴한 작품을 전시, 작품 소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신의 일상과 경험을 동화같이 풀어내는 문형태 작가를 비롯해 여행을 테마로 작품 활동을 펼치는 서

양화가 전영근, 달항아리 그림으로 유명한 권혁 작가 등 100여 명의 작가가 이 프로젝트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

다. 중견 작가와 신진 작가를 이어주는 의미 있는 멘토링 전시도 눈길을 끈다. 전시장 한쪽에 마련된 이세용 작가의 청화백자도 눈여겨볼 것. 이세용 작가의 생활자기는 10만 원 선이다.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65번길 70 웰 컴하우스 2층 **전화** 051-722-2201 **운영시간**

10:30~19:00, 월요일 휴관 **입장료** 무료 **홈페이** 지 www.gallerymac.kr





메르씨엘 비스 갤러리



맥화랑



탐나는 팝아티스트들의 아트 상품

메르씨엘 비스 갤러리 Merciel Bis Gallery

2013년 3월 개관한 메르씨엘 비스 갤러리는 프렌치 레스토랑 메르씨엘 건물 지하 2층에 있다. 르 코르동 블루에서 프랑스 요리, 파티세리, 와인 과정을 이수하고, 피에르 가니에르, 알랭 상드랑 등 톱 셰프 밑에서 요리를 익힌 윤화영 셰프의 요리를 맛보기 위해 미식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Bis'는 불어로 '쪽문'이라는 뜻으로

달맞이고개를 걸어 올라오다보면 <mark>갤러리로 통하는 작은 문을 발견할</mark>수 있다. 갤러리 한쪽에 마련된 아<mark>트 숍도 큰 볼거리. 데미언 허스트의 〈해골〉 작품이 프린팅된 에스프레소 잔을 비롯해 물방울 무늬 작가로 유명한 쿠사마 야요이가 디자<mark>인한 식기, 심통 부리는 여자아이 얼굴이</mark> 그려진 요시토모 나라의 재떨이. 장 미셸 바스키</mark>

아의 즉흥적인 드로잉이 새겨<mark>진 머그컵 등 세</mark> 계적인 팝아티스트들의 아트 상품을 보는 순간 절로 지갑 문이 열린다.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65번길 154 전화 051-747-9305~6 운영시간 5~10월 11:00~19:00, 11~4월 11:00~18:00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www.merciel.kr/bis





작가들의 지지를 받는 베테랑 화랑

조현갤러리 Johyun Gallery

1990년 광안리에 처음 문을 연 조현<mark>갤러리는 1999</mark> 년 해운대를 거쳐 2007년 6월 달맞이길 <mark>언덕에 건물</mark> 을 지어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 그해 12월, 서울 청담 동에 분관을 오픈, 당시 지방에 거점을 둔 갤러리가 서 울에 분관을 내 이슈가 됐다. 물론 전시도 반짝반짝 빛 이 났다. 국내 최초로 독일 작가 피터 짐머만의 전시를 기 획하는가 하면, 백남준 전시를 대규모로 개최해 부산 화단에서

입지를 굳혔다. 조현갤러리는 1년에 6~7차례 굵직한 기획전을 마련한다. 올해에만도 이소연 작가의 개인전에 이어 맨드라미 그림으로 알려진 김지원 작가의 개인전, 불안하고 불편한 풍경을 그리는 안두진 작가의 개인전, 한순자 작가의 모빌전 등이 열렸다. 소장전 〈프레젠트(Present)〉도 특별하다. 그간 김종학과 박서보, 이강소, 한순자 등 우리나라 현대미술 1세대 거장을 비롯해 줄리안 오피, 피터 짐머만, 티에리 되고 같은 현대미술계에서 주목받는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수 있는 기회. 25년간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작가들과 친분을 쌓은 덕에 2년 후까지전시 일정이 꽉 찬 상태다. 김종학 화백이 직접 쓴 카페 '반'의 간판, 설치미술가 최정화가 완성한 건물 외벽 등 갤러리 전체가 작가들이 헌정한 작품과도 같다. 3층은외국 작가들이 머무는 특별한 숙소인데, 데미언 허스트, 장 미셸-오토니엘 등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으로 꾸며져 예술품 속에 잠들 수 있다.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65번길 171 전화 051-747-8853 운영시간 갤러리 10:00~19:00, 카페 10:00~24:00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www.johyungallery.com



에스플러스 갤러리

쇼핑과 식사, 전시를 한 번에 에스플러스 갤러리 S+ gallery

블록 장난감을 불규칙하게 쌓은 듯한 범상치 않은 외관이 눈에 띈다. 달맞이고개에서 유독 튀는 이 빌딩은 블루독, 알로봇, 밍크뮤 등 아동복으로 유명한 서양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다. 2012년 8월 오픈한 이곳은 신사동 가로수길에 이은 서양인터내셔널의 두 번째 공간으로, 유아복 매장과 베이커리 카페, 이탤리언 레스토랑, 갤러리가 한 건물 안에 있어 아이와 함께 시간 보내기 좋다. 그중 에스플러스 갤러리는 빈티지 가구 갤러리인 신사동 에스플러스 갤러리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된다. 규모는 작지만,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비롯해 한스 웨그너, 핀율, 아르네 야콥센, 아르네 보더 등 북유럽 오리지널 가구전시를 기획해왔다. '산업디자인계의 살아 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디터 람스의 전시를 비롯해 팝아트 기획전, 조각가 손현욱 전 등 현대미술부터 디자인, 가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획전을 선보였다.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117번길 120-38 6층 **전화** 051-742-3353 **운영시간** 10:00~18:30, 월요일 휴관







해운대 부근



미국 마이애미 비치에선 매년 12월 아 트페어가 열린다. 바다와 미술의 아름 다운 조합에 매료된 전 세계 아트 피플 들은 눈부신 해변에 반하고, 작품에 마 음을 빼앗긴다. 마이애미 못지않은 곳이 바로 부산이다. 매해 4월 해운대에선 현 대미술 축제 〈아트쇼 부산〉이 열리고, 인근 갤러리마다 크고 작은 전시로 사 람들을 유혹한다.



서울 평창동에 본점을 두고, 2007년 7월 해운대에 문을 연 가나아트 부산점. 시원한 바다 전망과 이국적인 해변 풍경이 내려다보이는 노보텔 앰버서더 호텔 4층에 있다. 〈박수근 탄생 100주년 기념전〉 같은 굵직한 기획전은 물론 음악회나 교양 강좌 등 각종 문화 포럼이 연중 활발히 열린다. 전시장 한쪽에 마련된 아트 숍도 꼭 둘러봐야 할 코스. 팝아티스트와 한국도자기의 컬래보레이션 라인 '얍(YAP, Young

Artists Project)' 브랜드가 눈에 띄는데, 가나아트센터의 소속 작가인 마리킴, 찰스장, 김태중, 김지평 4인의 감각적인 팝아트 작품이 아트 상품으로 탄생했다. 그중 하트 모양의 귀여운 캐릭터가 인상적인 찰스장의 도자기는 여자라면 누구나 갖고 싶을만큼 매력적이다. 가나아트에서 자체 제작한 박수근의 판화 액자를 비롯해 최두수 작가의 유리 오브제도 볼만하다.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92 **전화** 051-744-2020 **운영시간** 10:00~19:00, 월요일 휴관 **가격** 도자기 아트상품 머그 2종 2만 4000원, | 내비받침 1만 6000원 홈페이지 www.ganaart.com



가나아트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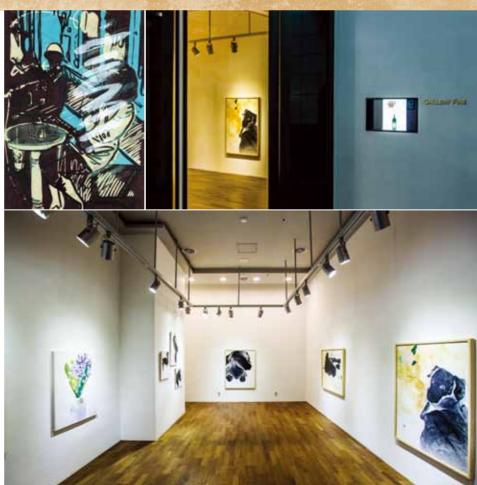


부산 지역 예술가들의 아지트

갤러리화인 Gallery Fine

1990년 12월 문을 연 갤러리화 인은 2006년 달맞이고개로 잠시 자리를 옮겼다가 2012년 9월 해 운대에 정착했다. 해운대의 랜드마 크인 씨클라우드호텔 1층에 자리해 누구나 찾기 쉽다. 한국화를 전공한 정 인화 대표는 작가 선정부터 전시 기획. 작품 설치 등 전시 전반의 과정에 참여하 고 있다. 그동안 한국화가 윤미옥을 비롯 해 판화작가 백유미, 서양화가 송호준 등 부 산을 기반으로 작업하는 지역 작가들의 전 시를 꾸준히 선보였다. 갤러리화인은 작품 성 있는 부산 작가들의 전시를 기획하고, 20년 넘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2년에 한 번 열리는 부산비엔날레 사무국으로 부산 미술 문화 발전의 중 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87 씨클라우드호텔 상가 111&112호 전화 051-741-5867 운영시간 10:00~19:00, 월요일 휴관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www.galleryfine.net



사진의 미학

고은컨템포러리 사진미술관 Goeun Contemporary Photo Museum

최근 2~3년 사이 사진전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2011년 유르겐 텔러, 2012

년 데이비드 라샤펠. 2013년 피터 린드버그와 마리오 테스티노. 그리 고 라이언 맥긴리까지, 사진전이 크게 주목받는 요즘이다. 지방 최초 의 사진 전문 미술관, 고은컨템포러리 사진미술관은 2007년 개관해 일찍이 사진 예술을 대중에게 알려왔다. 개관전 〈구본창 사진전〉을 시작으로 〈사진이 있는 작은 음악회〉 〈강운구 사진전-오래된 풍경〉 등 특색 있는 사진전을 선보이며, 창의적인 신진 작가도 발굴, 지원 했다. 특히 올해 마련되는 5개 연례 기획전에 주목할 것. 〈부산 참 견錄〉〈중간보고서〉〈부산사진의 재발견〉〈사진 미래色〉〈해외교 류전〉이 그것. 유럽과 미국의 대표 미술관과 긴밀히 협력해 진행하는 〈해외교류전〉은 2013년 프랑스 대표작가 베르나 르 포콩을 시작으로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독일 작가 사 진전 (Zen Sehen)에 이어 랄프 깁슨 사진전을 기획 중이다. 사진 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출판 사업과 교육, 학술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도 펼치고 있다. 미술관은 본관인 '고은컨템포러리 사진미술관'과 신관인 '고은사진미술관'으로 구성, 본관에선 사 진의 현재적 의미에 초점을 맞춘 작품을, 신관에선 사진의 기록성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1로 37번길 10 전화 051-744-3924 운영시간 3~10월 10:00~19:00, 11~2월 10:00~18:00 월요일 휴관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www.goeunmuseum.kr

에 주목하는 다큐멘터리 중심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고은커텐프러리 사지미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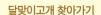
자동차 전시장에 부는 예술 바람 토요타 포토스페이스

토요타 포토스페이스

자동차 판매장에 생뚱맞게 전시 포스터가 붙어 있다. 자동차를 사러 온 사람들은 전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발길이 이어진다. 이곳은 토요타 부산이 운영하고, 고은사진 미술관이 후원하는 '토요타 포토스페이스'. 토요타 부산 전시장 2층 한쪽에 마련된 사진 전문 갤러리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일차적인 목적뿐 아니라 아트 마케팅을 통해 지역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투리 공간에 작품 몇 점 거는 그저 그런 전시가 아니다. 그동안 다양한 기획전과 교류전을 통해 사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신진 작가를 발굴.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1년에 4번 기획 전시를 마련, 〈외국 신진 작가 교류전〉과 〈국내 사진전문 갤러리 교류전〉을 열었고, 신진 작가 인큐베이팅, 부산 지역 작가 지원 등도 하고 있다.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99 전화 051-731-6200 운영시간 월 ~토요일 09:00~21:00, 일요일 10:00~20:00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www. toyotaphotospace.org



해운대 부근의 갤러리를 둘러본 후 달맞이고개로 올라가는 방법 을 택했다. 달맞이고개 꼭대기 '해오름갤러리'에서 반대로 내려 와도된다.

지하철 1호선 부산역에서 출발, 서면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 해운대역에서 내리면 해운대 부근의 갤러리를 만날 수있다.

버스 부산역에서 1003번 급행버스를 타고 '해운대 온천 사거리'에서 하차 (45분 소요), 해운대 해수욕장 입구 방 면으로 6분 정도 걸어오면 '가나아트부 산'부터 차례대로 둘러볼 수 있다. 또는 부산역에서 1001번 급행버스를 타고 '해운대역'에서 내려도 된다.





Trend & Analysis | 23



에디터 박산하**사진** (AB-ROAD) 자료실

Trend & Analysis | 24



'힐튼'의 특급 서비스가 내 것이 되다 힐튼 남해 골프 & 스파리조트

Hilton Namhae Golf And Spa Resort

서울에서 4시간을 꼬박 달려간 수고가 헛되지 않을 만큼 힐튼 남해 골프&스파리조트의 풍광은 그림 그 자체다. 너울대는 남해 바다의 파도에 영감을 얻어설계한 리조트 외형은 티타늄으로 지어져 날씨에 따라 시시각각 색을 바꾼다. 리조트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해외 힐튼 리조트의 특급 호텔(Five-Star)서비스가 동일하게 제공되는 것. 150개의 스위트룸과 20개의 빌라 가운데 2층단독 건물의 그랜드 빌라는 4개의 침실과 욕실, 2개의 응접실, 개인 수영장과아담한 정원으로 구성돼 해외 풀빌라 리조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리조트 내 탁아 시설과 '키즈 파라다이스'가 운영돼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여행객도 안심하고 찾을 수 있다.

주소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덕월리 산 35-5 전화 055-860-0100 홈페이지 www.hiltonnamhae.com

야롱베이 대표 리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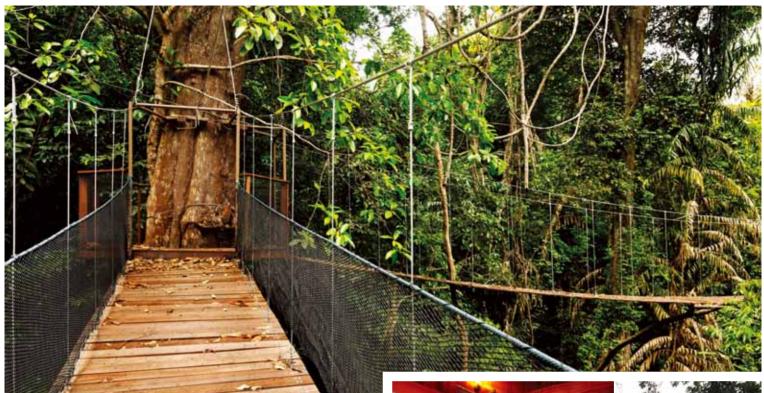
<u> 그랜드 메트로 파크 리조트</u> Grand Metro Park Resort

싼야를 대표하는 해변 중 가장 많은 고급 리조트가 들어서 있는 야롱베이는 휴양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운 해안이다. 이곳에는 리츠칼튼, 힐튼, 쉐라톤 등 고급 럭셔리 리조트가 25개 이상 모여 있다. 그랜드 메트로 파크 리조트도 그중 하나로 야롱베이 중앙. 야롱베이 골프 클럽(Along Bay International PGA Golf Course) 사이에 위치해 있다. 크게 빌라와 호텔식 리조트로 구분되는데. 호텔식 리조트 1층에는 개별 풀장이 있어 독립적으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다. 108개의 독립된 빌라는 그랜드 메트로 파크 리조트의 하이라이트. 카트로 움직여야 할 만큼 널찍한 규모의 리조트는 하나의 작은 마을을 연상시킨다. 싼야 시내와 약 25km 떨어져 있는 것이 단점이지만 완벽한 휴양을 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공간은 없다. 특히 신혼여행객이라면 빌라에서 둘만의 로맨틱한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리빙 공간과 침실이 독립적으로 구분돼 있고 풀장과 스파 파빌리온(Spa Pavilion), 마사지 풀(Massage Pool)에 작은 정원까지 갖춰져 있고, 빌라 반대편으로는 작은 강이 흘러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채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가족과 함께라면 2층에 2개의 침실과 2개의 욕실을 갖춘 패밀리 빌라를 이용하자. 3개의 독립된 침실을 갖춘 이그제큐티브 빌라(Executive Villa)의 경우 바비큐 가든까지 마련돼 있어 소규모 파티도 문제없다. 언제든지 카트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고 8개의 레스토랑과 퍼브가 있어 리조트 안에서도 충분히 여유로운 휴가를 만끽할 수 있다.

주소 中国三亚亚龙湾国家旅游度假区 전화 0898-8859-8888 홈페이지 www.metroparkhotels.com



Trend & Analysis \



여름 허니무너를 위한 배려

시가이아 리조트 Seagaia Resort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미야자키 현을 대표하는 리조트답게 신혼여행객을 위한 배려가 곳곳에 눈에 띈다. 리조트 안에서든 밖에서든 탁 트인 태평양의 전망이 시원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한쪽은 바다. 한쪽은 소나무 숲이 울창한 이 리조트의 규모는 길이 10km, 총 면적 700ha의 물리적 수치가 보여주듯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한다. 게다가 곳곳에 정성스러운 손길이 묻어 있는 디테일은 감동 그 자체. 시간이 된다면 리조트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는 것도 여행의 또 다른 묘미다. 초고층 호텔인 쉐라톤 그란데 오션 리조트는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거의 만실일 만큼 인기가 많다. 전체 투숙객 중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5% 정도인데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시가이아 리조트에는 이호텔 외에도 던롭 피닉스 토너먼트가 개최되는 일본 굴지의 명문 골프 코스인 피닉스 컨트리 클럽, 국제적 규모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월드 컨벤션 센터 서미트 등을 비롯해 국제 경기가 가능한 테니스클럼, 별장식 콘도미니엄 코티지 하우스, 1500마리의 각종 동물을 만날 수 있는 피닉스 자연동물원,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가득한 식물원 플로란데 미야자키 등 남국의 정취가 넘치는 다채로운 위락시설이 갖춰져 있다.

주소 宮崎県宮崎市山崎町浜山 전화 0985-21-1111 홈페이지 www.seagaia.co.jp









정글 리조트의 법칙

분가라야 아일랜드 리조트 & 스파 Bunga Raya Island Resort & Spa

분가라야 아일랜드 리조트 & 스파는 그야말로 정글에 집을 지었다. 정글과 제대로 한 몸이 된 리조트다. 새하얀 백사장과 에메랄드빛 바다를 지나 정글로들어가면 산 여기저기에 떨어져 있는 빌라들이 반긴다. 이곳에서는 주로 전동차 버기(Buggy)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0번을 누르고 리셉션에 전화하면 언제든 버기가 달려온다!). 때때로 어떤 언덕은 걸어서 올라가기에 숨이 찰 정도로 가파르기도 하지만 거대한 숲을 만난다는 것 자체로도 힐링이 된다. 리조트를 거닐다보면 40종류의 다양한 야생화를 발견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그중에서도 말레이시아의 국화인 히비스커스(Hibiscus)가 많다. 이 꽃은 무궁화의 한 종류로 분가라야 아일랜드 리조트 & 스파의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하늘에 닿을 듯한 키 높은 나무 옆에 빌라가 놓여 있고, 객실 사이로 나무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사람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느낌이 든다. 자연을 생각한 디자인을 인정받아 2010년에는 말레이시아 건축 시상식에서 리조트 부문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주소 Polish Bay, Gaya Island, Tunku Abdul Rahman Park, Kota Kinabalu, Sabah, Malaysia 전화 6-088-271000 홈페이지 www.bungarayaresort.com

Trend & Analysis | 26



보석 같은 해변

푸라마 리조트 Furama Resort

50km에 이르는 베트남 다낭 비치는 미국의 경제잡지 〈포브스〉에서 2005년 '세계 6대 럭셔리 비치'에 뽑힐 만큼 아름답고 평화로운 경치를 자랑한다. 그중 손 트라

페닌슐라에 오르면 하얀 해안선이 기차 모양으로 길게 이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감탄이 절로 나온다. 특히 다닝 비치에 위치한 베트남 최초의 5성급 푸라마 리조트는 로비에 서는 순간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합쳐진 듯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또한 리조트 전용 해변과 두 개의 메인 풀장, 넓은 발코니와 테라스를 갖춘 객실, 인터내셔널 뷔페 레스토랑과 바, 에스테틱 시설은 럭셔리리조트의 진수를 보여준다. 비치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스킨스쿠버, 데이투어 프로그램 등도 여행자를 반긴다.

주소 68 Ho Xuan Huong St., Bac My An, Danang 전화 0511-384-7333 홈페이지 www.furamavietnam.com





감각적인 아트 뮤지엄 호텔 하슬라 뮤지엄 호텔

Haslla Art World Museum Hotel

7번 국도를 타고 달리다 정동진이

보이는 순간산 언저리에 장난감 블록을 쌓아놓은 듯 알록달록한 원색의 철골 구조 건물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곳이 바로 조각가 최영옥 교수, 박신정 부부가 만들어낸 호텔. 지하 1층은 레스토랑과 갤러리, 1~3층이 호텔이다. 스탠더드 스위트룸을 제외하고는 모두 복층 타입의 구조로 26개의 객실 모두 각기 다른 디자인의 침대와 세면대, 욕조가 놓여 있다. 부부가 객실에서 제일 신경을 쓴 부분이 바로 욕실. 전 객실에서 정동진의 일출과 석양을 바라볼 수 있는 테라스 욕실 역시 이들의 아이디어다. 엄마의 자궁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침대는 폭신하다 못해 푹 감기는 안정감에 계속 누워 있고 싶게 만든다. 예술과 자연, 그 둘에 흠뻑 빠지고 싶다면 주저할 것 없이 하슬라 뮤지엄 호텔로 가봐야 한다.

주소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산 33-1 전**화** 033-644-9144 **홈페이지** www.haslla.kr



TPO Interview | 27



응우웬 티홍 Nguyen Thi Hong 베트남 호찌민 시 인민위원회 부의장

동남아의 관광 허브 호찌민 시

동남아시아의 문화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베트남 최대 규모의 도시 호찌민 시. 이제는 지속적인 관광 인프라 개발과 국제적인 홍보를 통해 베트남의 관광 수도로 거듭나고 있다. 응우웬 티홍 (Nguyen Thi Hong) 호찌민 시 인민위원회 부의장이 생각하는 호찌민 시 관광사업의 미래에 대해서 들어본다.

호찌민 시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호찌민 시는 잠재적 가능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보유한 베트남 최대의 관광도시입니다. 혁신과 발

전을 주도하는 선진 도시로서 베트남의 경제, 정치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활기찬 호찌민 시, 호찌민 시를 가장 적합하게 묘사한 것이 바로 '활기' 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최신 유행부터 비즈니스, 패션, 레 저, 문화 교류까지 도시의 모든 것이 그 단어 하나에 함축되어 있 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호찌민 시 방문 중 꼭 가봐야 할 관광지는 어디인가요? 그리고 부의장님이 가장 즐겨 찾는 관광지가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매년 전 세계 40억 여행자가 호찌민 시를 방문합니다. 베트남전체 방문객 수의 60~70%나 되죠. 첫눈에 봐도 호찌민 시가 굉장한 규모의 도시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300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변화가 있었죠. 도시 구석구석에서 그 변화의 산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프라와 관광시설이 발달한 베트남 최대의 관광 허브

(Hub)이며 동남아시아 지역의 게이트웨이(Gateway)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광 스폿이 도시 내에 있지만 그중에서도 통일회관(Reunification Hall), 시립극장 (City Theatre), 노트르담대성당(Notre Dame Cathedral), 시청(City Hall), 구찌 터널(Cu Chi Tunnels) 그리고 전쟁역사박물관 등은 꼭 방문해볼 것을 권합니다. 박당키(Bach Dang Quay) 에서 사이공 강을 따라 내려가는 크루즈를 타고 원주민 마을, 열대 숲, 수상시장, 그리고 유네 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껀저숲(Can Gio Mangroves Forest) 등을 구경하는 것도 좋습니다. **TPO Interview** \vdash 28

여행자가 호찌민 시를 방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호찌민 시를 가장 많이 찾는 국제 방문객은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동 남아시아의 문화유산과 역사를 보기 위해 호찌민 시를 찾습니다. 전통 공연 과 현대식 퍼포먼스 또한 빠뜨릴 수 없는 볼거리이

고 박물관에서 베트남 식민지 역사와 서구와의 전쟁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죠. 도시 내에서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요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매달 외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열리는 문화 행사에선 호찌민 시의 맛과 멋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여행 외 비즈니스, 쇼 핑, 레저를 목적으로 호찌민 시를 거쳐 가는 방문객도 많습니다. 허브 도시인 만큼 베트남 어디로든 교통편 연결이 가능해 힘들지 않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중 호찌민 시를 방문한 해외 여행자 중 일본인이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미국, 중국, 그리고 호주 순입니 다. 호찌민 시를 세계적 관광지로 성장시켜줄 프로모션 캠페인이 현재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관광을 위한 국제적인 홍보 캠페인으로, 앞으로 더욱 많은 관광 객이 호찌민 시를 찾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찌민 시의 관광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 <u>방문객이 늘어난 후 어떤 것들이</u> 활력 있는 경제, 그리고 통합 바뀌었나요?

호찌민 시의 장점으로는 젊 은 연령층과 높은 성장률의 역량을 꼽을 수 있습니다. 베 트남의 다른 도시에 비해 여





행자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는 곳이죠. 하지만 여행자들이 호찌민 시를 찾는 이유가 도시의 인프라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호찌민 시가 보유한 문화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시 홍보물을 제작할 때 여행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도시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새 로운 상품을 안내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호찌민 시는 최근 들어 관광객을 상대로 한 특별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호찌민 시-100개의 볼거리'라는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에게 꼭 들러봐야 할 호찌민 시의 최고 인기 관광지를 소개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수로를 따라 이동하는 수상 크루즈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호찌민 시의 관광지뿐만 아니라 메콩 강(Mekong River) 남부 지역을 따라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으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제 관광지로서 호찌민 시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수상 크루즈가 2011~2015년 최대 전략 관광상품인 만큼 호찌민 시는 수상 크루즈와 같은 특정 관광상품이 도시 성장에 더욱 더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찌민 시에는 역사적 무화적 그리고 전통적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의 보물이자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할 때 기반이 되는 것들입니다.

해외 마케팅 전략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세계의 많은 도시가 관광을 주요 호찌민 시를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특정한 방문 경제 소득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객을 상대로 마케팅을 펼치는 방법을 구상 중입니다. 이 를 위해 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호 찌민 시의 1402개 호텔을 조사한 결과 MICE(Meeting, Incentives, Conference, Exhibitions)와 인센티브 투어가

도시의 관광 인프라와 가장 잘 어울린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한 기업 인센티브나 콘퍼런스, 미팅과 같은 비즈니스 상품도 중요하지만, 레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호찌민 시-100개의 볼거리'를 시작한 이유 중 하나도 비즈니스 방문객들이 도시 의 관광 명소와 엔터테인먼트를 한결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도시와 TPO를 위한 조언이나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2년에 한 번씩 도시 정상회의를 열 것을 제안합니다. 동남아 도시와 TPO 소속 도시에 대 해 알 수 있고 관광사업에 대한 비전도 공유할 수 있으리 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것은 올해 호찌민 시에서 열리는 국제관광전시회(ITE-HCMC)에 모든 동남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관광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TPO News | 29



부산, 한국

2014년 TPO 한국지역회의 개최

2014년도 상반기 TPO 한국지역회의가 지난 2월 6일 부산광역시 해운대센텀호텔에서 열렸다. 거제시를 비롯해 광주광역시, 군산시, 김해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 중구, 부산 해운대구, 안동시, 울산광역시, 익산시,



인천광역시, 전주시, 창원시, 통영시 등 16개 TPO 회원 도시와 벡스코(BEXCO), 소라여행사 등 민간 회원이 참가했다. 이번 회의에선 지난해 하반기 TPO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주환명 사무총장이 나서 2014년도 사업 계획 발표와 질의응답을 했다. 또한 회원 도시와 민간 회원이 건의한 의견을 수렴해 TPO 회원 간 교류와 마케팅 활동 증대, 편리한 정보 제공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전체 TPO 회원 도시가 참여하는 지역회의가 오는 6월 말레이시아 코타바루에서 '제6회 TPO 포럼'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



광저우, 중국

TPO Travel Trade 2014-CHINA 성료

TPO 해외 공동 마케팅 행사인 'TPO Travel Trade 2014-CHINA'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중국 광저우 시에서 열렸다. 한국 TPO 회원 도시로는 부산광역시, 경주시, 안동시,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참가, 각 도시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중국인 관광객 유

치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벌였다. 특히 2월 28일, 광저우 시 여유국 회의실에서 열린 관광교역설명회에선 한국 TPO 회원 도시의 관광상품 및 자원 설명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광동 CITS와 광지려 등 현지여행사의 상품 개발 담당자와 언론인 50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한편, TPO는 같은 시기에 열린 광저우 세계여유박람회(GITF)에 공동 부스를 마련, 일반인을 대상으로 각 TPO 회원 도시가 지닌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적극 소개하기도 했다.

부산·김해, 한국

TPO 주관, '허왕후 신행길 공동 관광상품화 사업' 추진

부산광역시와 김해시가 가야국 김수로 왕의 부인, 허황옥 공주를 소재로 한 '허왕후 신행길' 관광상품을 공동 개발한다. 지난 2월 13일 김해시청에서 열린 협의회에선 김해 지역 역사 및 종교, 축제 관련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추진협의회와 부산시, 김해시, 경상남도 지자체 관계자들이 만나 사업 계획 방향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허왕후가 김해로 오게 된 경위와이동 경로, 허 씨로의 분파 과정, 최초 불교 유입 과정, 가야 문화와 의복, 유적지 등 역사 고증에 관한 자문도 이어졌다. '허왕후 신행길'은 인도에서 김해로 온 허황옥 공주의 도착 시점부터 혼례식까지 전 과정을 따라가는 코스로, '망산도(진해 용원) ~ 유주암~흥국사~김수로(허왕후) 왕릉'에 이르는 길이다. 관광상품이 개발되면 아시아태평양지역 여행사 초청 팸투어, 일본 관광객 유치·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허왕후 신행길'의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장기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TPO News | 30



인천, 한국

송도시, 올 하반기 축제 소식으로 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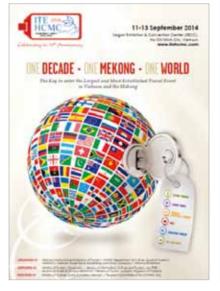
인천 송도시가 올 하반기 다양한 문화 축제로 물든다. 그중 가장 주목 해야 할 5대 축제는 8월에 열리는 '송도 세계문화 축제' '인천 펜타포트록 페스티벌', 10월로 예정된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인천 음악 불꽃축제' '송도 마라톤 대회' '인천 한류문화축제(The K Festival)'.

2011년부터 열린 '송도 세계문화 축제'는 유럽과 아시아 곳곳에서 공수해온 세계 맥주와 100종이 넘는 세계 전통 요리를 맛볼수 있는 자리다. 1970~90년대 인기를 끌었던 불후의 명곡과 가수들도 만날 수 있다. 음악 선율에 맞춰 밤하늘을 수놓는 폭죽이 인상적인 '인천 음악불꽃축제'는 지난해 10월 첫선을 보인 축제, 4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밤늦도록 행사를 즐겼다.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은 마니아층이 두꺼운 음악 축제로 지난해부터 송도에서 개최되었다. 교통 접근성이 좋아진 덕에 지난해 12만여 명이 다녀갔다. 올해가 1회째인 '인천 한류문화축제(The K Festival)'는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시기에 맞춰 10월 3~4일까지 이틀간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지난 5년간 인천 한류 관광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인천도시 공사가 마련한 것으로, K-POP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뷰티 등 한류 문화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꾸밀 예정이다.

호찌민, 베트남

메콩 지역 최대 규모 관광전 'ITE HCMC 2014'

베트남 및 남부 메콩 지역 최대 규모의 관광전 'ITE HCMC 2014(제10회 호찌민 2014 국제 관광 엑스포)'가 오는 9월 11~13일 베트남 사이공 전시 컨벤션 센터 (SECC)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메콩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관광 전문 엑스포로, 업계 관계자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관광을 소개하는 자리다. 올해 역시 메콩 지역의 관광상품과 서비스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의 관광상품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B2B 및 B2C 행사,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CLMTV) 지역 대상 Mekong Tourism Alliance Awards(TAA), 일본 관광 투자 컨퍼런스, 포스트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지난해 열린 'ITE HCMC 2013' 행사에는 세계 58개국에서 총 320개업체와 브랜드, 280명의 바이어와 28개 언론사, 159개 미디어 기업이 참가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





옌타이, 중국

제24회 TPO 운영위원회 개최

제24회 TPO 운영위원회가 지난 3월 26 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중국 옌타이 시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광저우(중국), 싼야(중국), 부산(한국), 전주(한국), 자카르타(인도네시아), 후쿠오카(일본) 6개 도시에서 12명의 대표가 참석했다. 3월 27일에 열린 본 회의에서는 5개 민간단체의 신규 회원 가입, 2013년도 예산집행 변경, 2014년도 예산계획 변경, 사무국 감사계획, 사무국 인력 운영계획, 한국회원 도시를 위한 연회비 선택제 도입 등이 승인되었다. 한편, 차기 제25회 운영위원회가 오는 11월 타이베이 시에서열릴 예정이다.



Festival Calendar \vdash 31

Festival Calendar



한국, 부산 | 한국, 부산 인천월드라인컵 2014

장소 인천 송도 국제도시 해안도로 일대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하는 대회로 프랑스. 독 일, 이탈리아, 스위스, 미국, 아르헨티나, 일본 등 20여 개국 최정상급 선수들과 국내 엘리트 선 수 및 인라인 동호인들이 함께하는 세계 최대 규 모의 축제다. 10~40㎞까지 다양한 코스로 이뤄 져 있으며 쭉쭉 뻗은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는 인 라인 경기는 보는 사람도, 즐기는 사람도 짜릿함 을 만끽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6월 6일~6월 8일 인도네시아 요트 쇼 2014

장소 Batavia-Marina

올해로 2회째는 맞는 요트 쇼로 고급 요트를 비 롯해 다양한 요트를 선보인다. 첫째 날은 요트 포럼을, 나머지 날은 다양한 요트를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있다. 독특하면서도 새롭게 선보이는 요트들이 주를 이룬 전시 프로 그램은 요트 마니아에게 필수 코스로 정평이 났 다. 올해 4000여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 로 예상된다.

한국, 대구 | 6월 4일~6월 8일 제5회 대구꽃박람회 Daegu Flower Show 2014

장소 EXCO 1층 전시장

'향기로운 꽃길 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5회 대구꽃박람회, EXCO 전시장 중 1 만 3000㎡ 규모의 공간에 다채로운 꽃을 선보인다. 전시장 내외부에서 진행되는 전 시 관람은 봄 나들이로도 제격이다. 전시는 가드닝, 꽃동산, 아생화, 수생식물, 플라 워디자인, 프레스플라워, 토피어리, 다육실물 등 다양하게 구성된다. 플라워 미니 콘 서트, 꽃 나눠주기, 화훼 모종 심기 등 부대행사도 풍성하다.



한국, 부산 | 6월 6일~6월 9일 제10회 해운대모래축제

장소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드넓게 펼쳐진 백사장을 무대로 '세계모래작가초대 모래조각전', '모래 축제퍼 레이드', '모래야! 놀자'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행사가 열린다. 특히 '모래 따 라 해운대삼포걷기', '도전! 나도 모래조각가' 등은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주변에 자갈치시장, 광안리, 태종대 등 관광 명소가 있어 축제와 함께 관광을 즐기기도 좋다.





한국, 남해 | 6월 14일~6월 15일 다랭이 논 축제 장소 가천다랭이마을

신비로운 경관으로 손꼽히는 다랭이논에서 펼쳐 지는 축제. 모내기 체험과 써레질 체험, 미꾸라 지 잡기 등 논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손 그 물 낚시와 래프팅 등의 수중 프로그램으로 나뉜 다. 밤에는 캠프파이어와 대동놀이 등이 열려 낮 보다 더 화려한 풍경이 연출되기도 한다. 한국 시골의 정을 담뿍 느낄 수 있는 민박, 밥상 문화 체험은 축제의 덤이다.



한국, 김해 | 6월 15일 경남은행과 함께하는 2014 김해숲길마라톤대회

장소 김해운동장

하<u>프코스</u>, 10km 힐레이스코스, 5km 건강달리기코 스 등 세 코스로 구성되어 있는 마라톤 대회. 각 코 스는 김해운동장에서 시작, 삼계근린공원, 김해천 문대, 야구장, 사격장 등을 거친다. 이 코스는 삭막 한 빌딩 숲이 아닌 맑은 공기를 마시며 달릴 수 있 는 거대한 숲으로 달리다보면 몸이 절로 가뿐해진 다. 다소 가파르지만 숲을 가까이하고 싶은 이들에 게는 더없이 좋은 대회다.

Festival Calendar + 32

Festival Calendar



한국, 부산 | 7월 2일~7월 4일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2014 장소 벡스코 제1전시장 1.2홀

한국을 대표하는 수산 종합 전문 무역박람회. 전 시관은 세계 각종 수산물과 수산 기자재를 한곳 에서 볼 수 있다. 25여 개국, 350여 업체 및 기 관이 참여하는 전시회로 전 세계 수산업계의 흐 름을 살펴볼 수 있다. 냉동·냉장 수산물과 연제 품, 염장품, 해조류 등을 전시하는 Seafood관과 어구 · 어망, 어선 기자재, 수산 가공 기계류 등을 볼 수 있는 수산기자재관, 해양 바이오 신소재, 해양자원 응용 제품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전문관 인 해양바이오 산업관으로 나뉜다.



한국, 울산 | 7월 21일~7월 27일 울산서머페스티벌 장소 울산광역시 일대

울산서머페스티벌은 지역 방송사인 울산 MBC가 2003년 창사 35주년을 맞이해 지역민의 문화 증 진을 위해 계획한 음악 축제로 매년 여름, 일주일 동안 개최된다. 트로트, 댄스, 발라드, 록, 힙합, 포크 등 여러 장르 중 하루에 하나 이상의 장르를 정해 공연해 수준 높은 무대가 펼쳐진다. 지금까 지 무대를 빛낸 뮤지션도 1000여 명이 넘을 정도 로 탄탄한 구성을 보여줬다. 관람료나 참가비가 없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일본, 후쿠오카 | 7월 1일~7월 15일 하카다 기온이마가사 축제

장소 후쿠오카 시내

하카타 인형사들이 꾸민 호화찬란한 장식 가마들이 도시 곳곳을 물들이는 축제, 눈을 즐겁게 할 뿐 아니라 역동적인 프로그램으로 신명 나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축제의 클라이맥스인 '오이야마'는 무게 1t의 야마가사(가마)를 수백 명의 남자가 짊어지고 겨루는 경기다. 이때 7개의 가마가 5분 간격으로 차례차례 거리로 뛰어나와 다툰다. 거리의 관중은 뜨거운 성원과 박수를 보내며 축제의 흥을 돋운다.



한국, 부여 | 7월 17일~7월 20일 제12회 부여서동연꽃축제 **장소** 서동공원(궁남지) 일원

부여의 여름철 대표 축제, 백제시대 무왕의 탄생 설화가 깃든 궁남지와 천만 송이 연꽃향이 어우 러진 서동공원에서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이야 기를 모티프로 펼쳐지는 축제. 사랑과 낭만이라 는 주제로 연꽃 만들기, 탁본 체험, 연 음식 시식, 다도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무엇보 다 드넓은 못에 화려하게 피어난 연꽃이 장관을 이룬다. 특히 밤에는 연꽃등이 연못을 밝히며 낭 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일본, 오사카 | 7월 24일~7월 25일 2014 오사카 덴진마쓰리 장소 덴만구신사

오사카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 하늘신에게 제를 올리는 천신제로 3대 마쓰리 에 속한다. 첫째 날엔 도시마가와에서 1년의 신의를 묻는 호코나가시(창 띄우 기) 행사가 펼쳐지며, 둘째 날에는 후나토쿄 행사가 열려 축제의 절정을 맞는다. 100여 척의 화려한 배가 도시마가와 및 오가와를 거슬러 올라가는 수상제로 북 을 함께 연주하고 불꽃놀이도 벌인다. 육지뿐 아니라 강에서 즐기는 축제이기에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중국, 상하이 | 7월 31일~8월 3일 2014 차이나조이 장소 신국제박람센터

대규모 신국제박람센터에서 매년 열리는 중국 최대 게임 전시회. 중국은 해외 게임의 비중이 높지만 자국 게임의 비율도 차츰 높아지는 만큼 박람회의 규모도 점점 커지는 추세. 온라인 게임 과 웹게임 위주로 선보이며 중국 내 주요 개발사 들의 참여율이 높아 다양한 정보를 얻기 좋다. 중국 게임 산업 컨퍼런스, 유명 개발자들이 참석 하는 컨퍼런스 등도 함께 열려 전문성도 두루 갖 춘 축제다.

Festival Calendar | 33

08 August 2014

Festival Calendar

한국, 인천 | 8월 1일~8월 3일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Pentaport Rock Festival 장소** 인천 송도 23호 근린공원 내 페스티벌 행사장

인천의 활기찬 여름을 책임지는 한국 대표 록 페스티벌. 인천광역시가 내세 운 공항(Airport), 항만(Seaport), 정보(Teleport)에 비즈니스(Businessport), 레저 분야(Leisure-port)의 다섯 포트를 결합시킨 신도시 전략 펜타포트(Penta-Port)에서 유래한 페스티벌. 한국에서 열리는 대표 록 페스티벌로한국의 록 뮤지션은 물론 세계적인 유명 뮤지션도 무대를 찾아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한다.





한국, 부산 | 8월 초 **부산바다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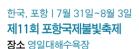
장소 해운대해수욕장 등

바다의 도시 부산 곳곳 해변에서 열리는 축제. 각 해변에서는 매직페스티벌과 록페스티벌, 재 즈의 밤, 힙합페스티벌, 하모닉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이때만큼 도시 전체는 물과 음악이 넘치는 젊음의 거리로 변신한다. 축제는 부산의 대표적인 해변인 해운대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다대포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다대포해수욕장 등 5곳에서 열리다.



중국, 청도 | 8월 둘째 주(16일간) **청도국제맥주제 장소** 산둥성 칭다오시

1903년 중국 최초의 맥주가 탄생한 칭다오에서 열리는 여름 축제. 칭다오는 독일의 식민지였던 청도는 그 기간에 뛰어난 맥주 가공 비법을 전수 받았다. 1991년에 시작한 축제로 다양한 맥주를 맛볼 수 있는데 축제가 열리는 동안 30개의 맥주 회사와 50만 명의 관람객이 참여한다. 이 밖에 다채로운 공연과 화려한 패션쇼, 스포츠 경기 등의 행사와 국내외 맥주 기술 교류 세미나, 경제무역상담회 등도 열린다.



매년 7월 말에서 8월 초 형산강 체육공원과 포항운하, 영일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리는 축제. 매년 150만 명이 찾을 정도로 대규모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매년 150만 명이 찾는 '불과 빛'의 도시, 포항을 가장 잘 나타내는 페스티벌로 축제 기간 내내 환상적인 불꽃 향연이 펼쳐진다. 한국, 캐나다, 프랑스, 중국 등이 참가하는 국제불꽃경연대회가 볼 만하며 영일대 미디어 파사드에서 열리는 뮤직불꽃쇼도 놓치면 안 된다.





한국, 거제 | 7월 31일~8월 4일 제21회 해양스포츠 바다로세계로 장소 구조라해수욕장 등 거제시 일원

매년 7월 말에서 8월 초에 열리는 한려수도 해양축제로 천혜의 관광자원과 문화예술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전국 최대의 해양 축제다. 윈드서핑대회, 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 전국에어로 박대회, 핀수영대회 등 해양스포츠와 콘서트, 불꽃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가 5일 내내 쉴 틈 없이열린다. 거제의 시원하고 낭만 가득한 추억을 만들수 있다.



일본, 오사카 | 8월 16일~8월 17일 2014 서머소닉 장소 도쿄, 오사카

매년 8월에 오사카와 도쿄에서 동시에 열리는 일본 3대 록 페스티벌 중 하나. 아시아 최대의 화려한 라인업을 보여주는 도시 축제다. 특히 2014년에는 Artic Monkeys와 Queen이 헤드라이너로 꼽히면서 일본 최고의 록 페스티벌로 거듭난다. Robert Plant와 Pixies, Megateth도 꽤 주목할 만한 뮤지션이다. 일본 어느록 페스티벌에서도 만날 수 없는 라인업으로 해마다록 마니아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